

인도그림기행 ②

그림·글 이호신

‘선승’ 처럼 다가오는 간디여!

나는 가난한 탁발자

간디의 집과 웨일즈 박물관



◇마하트마 간디(173×137cm).

사용했던 방은 가난한 성자의 체취로 가득
유물의 연륜·다양성에 마음 숙연해지고...

나는 가난한 탁발자이다. 내 속세의 소유물은 여섯 톨의 물레, 감옥에서 쓰던 점시들, 산양 털통, 여섯 벌의 옷과 타올, 그리고 내 알량한 명예이다. (간디 자서전)

내가 만일 염주를 세는 것과 물레 돌리는 것 가운데 택일해야 한다면, 내가 가난을 알고 이 나라에 굶주림이 있는 한 물레의 편에 손을 들어 그것을 나의 염주로 삼을 것이다.

이처럼 간디의 진리와 사랑은 불교의 지혜(반야)와 자비의 개념에 닿아있다. 또한 자기 희생과 불사는 대승(大乘)의 보살도(菩薩道)와 결코 다르지 않다. 3년 전(2000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기 위해 경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박물관에서 마주친 간디의 흉상, 그곳에서 그가 소수민족과 인도 난민을 위해 변호사로 애쓴 흔적을 살필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그 후 리처드 아텐보러(Richard Attenborough) 감독의 ‘간디’ 영화에 매료되어 수 차례 비디오를 보며 간디역의 벤 킹슬러(Ben Kingsley)를 좋아하게 되었다. 영상은 고난에 찬 간디의 생애가 감동으로 다가 왔으며 자서전을 통해서는 그 영혼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다. 간디는 150년의 영국지배로부터 인도를 해방시킨 인도의 아버지로, 타고르는 그에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마하트마’의 존칭을 부여했다. 그는 평생 비폭력 독립투쟁 외에도 힌두, 회교도의 종교 갈등과 여성의 인권, 계급철폐에 따른 불가촉 천민에 대한 끊임없는 연정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 간디는 참으로 가난한, 결사정신(乞士精神)을 지닌 탁발자였지만 인도의 운명과 인류를 향해 진리를 추구한 순교자였다.

생전의 모습이 전시된 사진을 화첩에 담아 보는데 선승과 같은 수행자의 모습이 떠오르게 아닌가. 그 간디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졌다. 그림을 위해 낡은 간디 앨범을 기념관에서 구해 귀국 후에도 자주 넘겨보는데 특이한 것은 어느 장면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런 참모습이요, 자애와 겸허함이 언제나 묻어나는 사실이다. 그 중 노아카리에서 지팡이를 들고 좁은 인도교를 건너는 장면은 마치 어느 고승의 걸음을 떠올린다. 꺾은 머리에 허리를 구부리고 카다르(인도의 수지 무명꽃)를 걸친 채 마른 종아리에 샌달을 신은 모습이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조선후기 인물화의 선구, 공재 윤두서의 탁속한 ‘고승’ 그림이 연상되었다. 따라서 그림은

고뇌에 찬 모습에서 험한 길도 미소 띠며 가는 수행자의 표정으로 바꾸고, 막대기를 대 지팡이로 고친 다음 붓을 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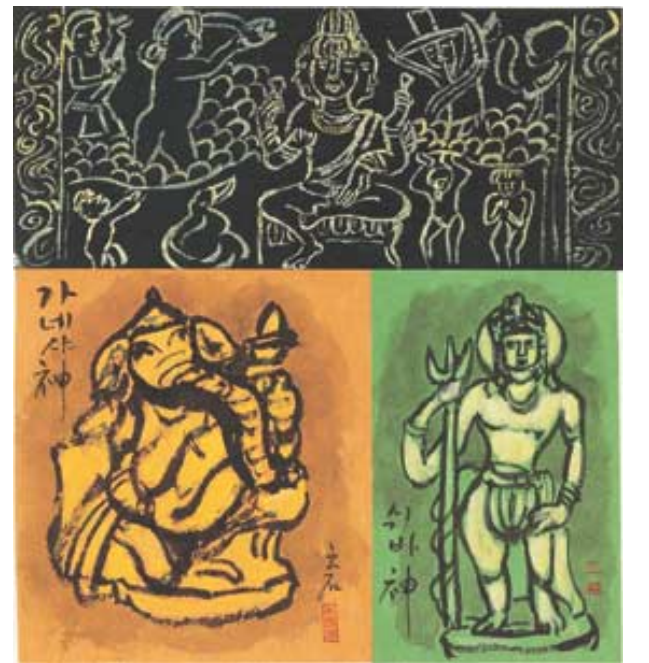
과거의 역사와 삶은 말이 없지만 유물을 통해 그 영혼의 숨결을 추스린다. 인도 3대 박물관에 꼽힌다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 박물관(Prince of Wales Museum)’은 인도로 북서쪽 500m지점에 있었다. 미술, 고고학, 자연사로 나뉜 전시 공간은 유물의 연륜과 다양성으로 인해 여행자를 한껏 들뜨게 한다.

기원전의 불상으로부터 주변국, 티베트, 네팔의 불상이 이채롭고 간다라 불상과 부처의 생애를 기린 조각이 눈길을 끈다.

특히 티베트 불교미술의 탱화, 힌두와 이슬람교의 세밀화가 매우 많다. 또 신의 나라답게 수많은 신상의 조각이 즐비한데 그 중 엘리펀트에서 출토된 시바신과 가네샤신, 그리고 브라흐마 신상이 눈에 띈다.

‘시바신’은 삼지창을 들고 있으며 지혜와 행운의 신이라는 ‘가네샤’는 코끼리 머리에 큰뱀을 내민 우스꽝스런 형상이다. 또 ‘브라흐마’는 4개의 머리와 물단지, 활, 판자, 베다를 들고 경배를 받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점심시간을 쪼개 서둘러 화첩을 끼고 식당을 나서자 문 앞에는 흥미 있는 먹거리가 펼쳐졌다. 입담배에 싸서 먹는 ‘뽕’이라는 음식인데 나뭇잎에 끈끈한 액체를 손가락으로 비벼 바른다음 온갖 향신료를 뿌리고 말아서 건네주니 상대편은 입에 속 넣는다. 입만두처럼 여겨지는 뽕은 5루피~50루피 까지 있었다. 가만히 보니 가격 탓인가, 주문하는 사람에 따라 재료가 모두 다르다. 한편 부산한 거리를 살피는데 앉은뱅이 소녀가 바퀴 달린 나무판에 앉아 구걸을 해와 몇 루피를 건네고 화첩을 펴들자 소녀는 뽕을 물어서 버린다. 그녀의 수치를 자존심을 내가 건드린 모양이다. lns1957@ycoo.co.kr



◇인도의 신상(46.5×50cm).

협찬: 실코도여행사·안성 도피만사

세계 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잡귀와 악귀를 물리치는 금강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어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회귀 금강석으로 이곳을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발들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훈을 포기하고 잠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렴성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와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기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간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7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남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기운을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으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통염주소원성취척척염주(금강염주)소요금액: 195,000원. 1. 점안식 2. 선물로 받기 3. 신용결제 가능



건강정보 장수 호두약돌

생명의 기

100년 건강 세상을 만드는 지혜



황토생명공학 센터에서 황토와 음이온, 원적외선, 기(기)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린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님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 시켜 머리를 좋게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에열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기가 발산하며 건강증진과 활력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0개 지 발산되고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황토가 다량 들어 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 놓이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기를 채워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분, 수술을 받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후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 소 33,000원 대 38,000원 문의전화 (02)3210-3179

※ 목걸이와 팔찌도 판매예정임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는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 수돗물 받아 붓어를 넣으면 붓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유택하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붓어는 10분내로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푹 멍칩니다. 이 외에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안압골로 마비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가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렴성,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신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제 전화는 (02)722-1850입니다.

★농협:1143-12-049474 송영화